

소프트파워의 미래전략:
21세기 권력론의 학제간 연구

I. 연구배경

본 연구의 테마인 매력(魅力, soft power)의 출발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S. Nye, Jr.)의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나이는 지난 십여 년의 개념화 작업 끝에 최근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라는 단행본을 펴낸 바 있다. 나이의 소프트 파워는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실천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 개념이지만, 21세기 한국의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데에도 길잡이 역할을 하는 개념임에 틀림없다.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실력(實力, hard power)의 측면에서 비(非) 강대국인 나라가 세계정치의 현실에서 매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폭력도 없고 금력(金力)도 충분하지 않지만 매력은 있는 국가가 되는 길은 없을까? 그러한 매력을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류(韓流)와 IT산업의 성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부분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매력이 단편적인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서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념적·경험적 차원에서 좀 더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매력의 미래전략에 대한 고민은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환을 겪고 있는 권력 개념에 대한 탐구일 수밖에 없다. 권력 개념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사회과학자들을 사로잡은 주제였다. 그러나 권력 개념만큼 사회과학자들을 난감하게 만든 사회과학 분야의 개념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권력은 누구나 다 알고자 하지만 아무도 그 정체를 제대로 알기 힘든 개념이었다. 따라서 21세기 맥락에서 본 권력변환(power transformation)에 대한 고민은 어느 한 분야의 시각을 넘어서 좀 더 본격적인 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학과 사회학 분야의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21세기 매력론에 대한 학제간 연구의 첫발을 내딛어 보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 | | |
|-------------------|-------------------|
| 1. 정보세계정치학에서 본 매력 | - 김상배(서울대 외교학과) |
| 2. 정치경제학에서 본 매력 | - 손 열(연세대 국제학대학원) |
| 3. 조직사회학에서 본 매력 | - 한 준(연세대 사회학과) |
| 4. 국제정치이론에서 본 매력 | -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
| 5. 서양정치사상에서 본 매력 | - 홍태영(국방대 국제관계학부) |
| 6. 네트워크사회학에서 본 매력 | -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
| 7. 정치사회학에서 본 매력 | -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
| 8. 동양정치사상에서 본 매력 | - 김영민(서울대 정치학과) |